

증시 활황에 비은행이 실적 견인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 돌파

KB, 수수료이익 2.9조 50% 급증
신한, 비이자이익 2.6조 19.7% ↑
하나, 증권 순이익 156% 급증
우리, 비은행 이익 비중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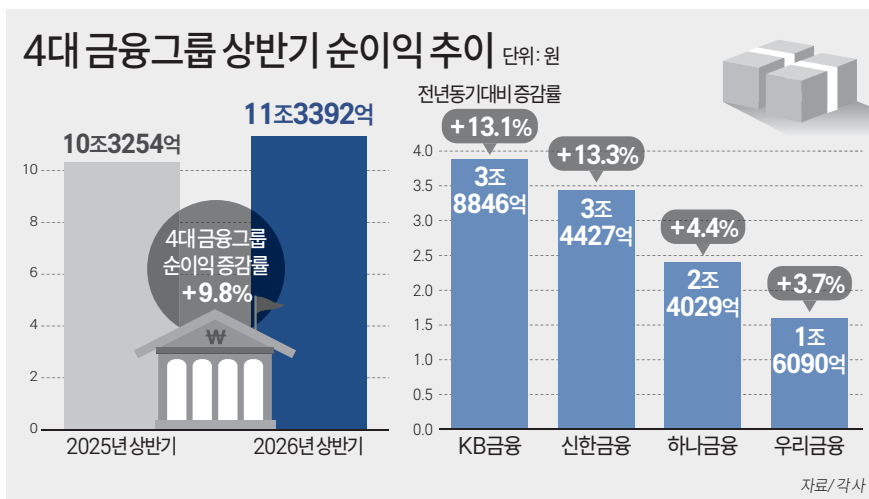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1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부문의 성장세는 둔화했지만, 증시 활황에 힘입어 증권·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가 실적을 끌어 올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4대 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은 총 11조339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 같은 기간(10조3254억원)과 비교해 9.8% 증가했다.

KB금융은 상반기에 3조88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3조4357억원)보다 13.1% 증가한 규모다. 특히 수수료이익은 2조9612억원으로 같은 기간 50.6% 늘었다. 증시 활황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와 투자금융(IB) 부문의 실적 개선이 수수료이익 증가로 이어지며 비이자이익 확대를 견인했다.

신한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3조44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수수료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조440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1298억원으로 47.9% 늘었다. 수수료이익 증가에 힘입어 비이자이익도 2조6381억원으로 같은 기간 19.7% 확대됐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2조402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4.4% 증가한 규모다. 2분기 순이익은 1조192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회생 관련 충당금 적립과 외화환산손실 등 일회성 비용에도 수수료이익이 크게 늘어 실적을 뒷받쳤다.



상반기 수수료이익은 1조487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7% 증가했다.

특히 하나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은 2731억원으로 같은 기간 155.7% 급증하며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우리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60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대손비용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동양생명 편입 효과와 증권·카드·캐피탈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비은행 부문의 이익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6.9%에서 올해 상반기 22.3%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금융그룹 실적의 공통점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KB증권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82.1% 급증했다.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자산운용의 2분기 당기순이익도 각각 91.6%, 153.7% 증가했다. 하나증권 역시 상반기 기준 세 자릿수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 부문의 성

장세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금융그룹들이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은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 등으로 수익 기반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 금융그룹의 순이자마진(NIM)이 추가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에도 금융그룹들은 이자이익 확대보다 비이자이익 증대와 자본 효율성 제고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KB금융은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소각하고 주당 1155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한금융도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과 주당 740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다.

하나금융은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고 주당 1155원을 배당한다. 우리금융도 하반기 중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소각하고 주당 220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하나은행, 인천 기업에 4000억 금융지원

인천신보와 포용금융 업무협약

하나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인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이 넘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 포용금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포국제시장과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과 함께, 하나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총 5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상반기 3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하반기

기에도 20억원을 추가 출연해 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과 공공배달앱 '막개비' 가맹점주에게는 금융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간접 운영자금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신포국제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을 직접 둘러보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 행장은 "하나금융그룹이 오는 9월 청라로 본점을 이전해 인천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만큼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기업과의 상생은 금융기관의 책무"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AI에이전트'로 고객기반 확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우리은행이 하반기 경영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영업체계를 강화와 적극적인 고객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 주재로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410여명이 참석하는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기반 영업 ▲사업그룹 간 협업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영업전략과 실행 방향 등이 주제로 설정됐다.

정진완 행장은 "이제는 지금까지 다져온 고객기반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해야 한다. 외형만 늘리는 영업이 아니라,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진성 영

업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회의의 슬로건을 'WON the way, 다시 빛나는 우리'로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상반기 성과로 삼성웰렛머니·N페이 등 외부 플랫폼 제휴 확대, 금융권 최초 티켓 플랫폼 '투더문' 출시 등 고객 접점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모바일 뱅킹 앱인 '우리WON뱅크'의 월간 활성사용자 수(MAU)는 900만명을 넘겼으며,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고객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도 성과를 거뒀다. 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2024년 말 13.1%에서 올해 6월 말 15.3%로 2.2%포인트(p) 올랐고, 개선된 자본여력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원화 대출금은 총 7조8000억원 가량 늘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내수 침체’ 기업 부실… 은행권 리스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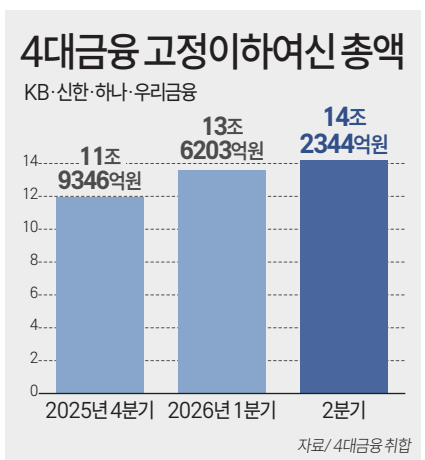
4대 금융지주, 2분기 부실대출금 총 14.2조, 전년대비 19.3% 증가
하반기에도 부실 폭 더 커질수도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K자형 성장'으로 업종별 경기 차별화가 확대되고 일부 내수 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은행권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NPL) 총액은 14조 2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19.3% 늘어난 수준이다.

고정 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회수가 어렵거나 폐업 위험이 큰 부실대출금을 말하며, 고정, 회수이론, 추정손실의 3가지 항목을 합친 것이다. 은행 자산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문제는 하반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부실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7%로 전월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0월 0.81%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은행의 연체율은 1%를 넘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산건전성 악화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전체 연체율 상승을 이끈 것은 기업대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리지 않고 연체가 전반적으로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5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로 2015년 5월 1.1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후 은행들

이 수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대출 공급을 확대해 온 점이 부실 확대에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까지 장기화하면서 자금 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대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5월 말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보다 0.05%p, 전년 동월보다 0.12%p 각각 상승했다.

이는 2021년 9월 말 0.28%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대기업의 자금 사정도 점차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권의 건전성 악화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올해 3분기에도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부문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매출 감소와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번주 전국 7개 단지서 6359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일반분양 물량 총 2439가구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35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439가구나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 경기 고양시 원흥동 '고양창릉S3·S4북쪽',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중흥토건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를 재건축한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5개동, 전용면적 36~84㎡, 총 3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5가구를 일

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장위뉴타운 조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며, 서울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 도심 내 이동이 편리하다. 서울선곡초, 광운초, 남대문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모텔하우스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부산 남구 대연동 '두산위브더제니스대연', 부산 남구 문현동 '다샵트리센트'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